

2023. 6. 29.(목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6월 28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

뷰티패션산업과장	권 소 현	02-2133-8761
패션 산업 팀 장	허 선 주	02-2133-8774
담 당 자 (패 션 위 크)	선 민 주	02-2133-8789
담 당 자 (글 로 벌 육 성)	김 재 빈	02-2133-8771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서울패션위크 최초 아시아 면세점 진출, K-패션 독창성으로 일본 MZ세대 공략

- 롯데면세점 도쿄 긴자점 내 서울패션위크 전용관 27.(화) 개관...프리미엄 유통망 확보
- 오세훈 시장, 서울패션위크 최초 아시아 면세점 진출 현장 찾아 K-패션 세계화 약속
- '23 춘계 서울패션위크 TOP5 브랜드 중 3개 브랜드 우선 입점...다양한 혜택 제공
- 국내 최대 면세점 월드타워점에도 개관 예정...서울패션위크가 세일즈 파워 갖도록 키울 것

- '서울패션위크' 브랜드관이 일본 명품거리이자 쇼핑 지구의 중심 '긴자'에 문을 열고 일본 MZ세대 공략에 나선다.
- 서울시가 27일(화) 16시, 일본 도쿄 롯데면세점 긴자점 내 서울패션위크 브랜드 전용관 개관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 오세훈 시장은 개관식에 참석하여 서울패션위크 전용관에 우선 입점한 3개 브랜드를 둘러보며, K-패션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. 이날 개관식에는 이완신 롯데호텔HQ군 총괄대표,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함께 참석했다.

- 이번 서울패션위크 전용관 개관은 서울시-롯데면세점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, 서울패션위크로는 최초로 아시아 면세점에 진출하는 성과이자, 국내 패션 브랜드가 새로운 프리미엄 유통망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.
 - 개관에 따른 운영은 서울시와 롯데면세점이 함께한다. 시는 전용관 내부를 조성하고, 입점브랜드 선정 및 관리, 브랜드 홍보를 지원한다. 롯데면세점은 전용관 공간 및 집기 제공, 매장 운영, 브랜드 판매실적 관리에 힘을 계획이다.
 - 서울시는 롯데면세점과 국내 뷰티, 패션산업 유망 브랜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(MOU)을 지난 5월 1일(월) 체결한 바 있다.

- 이번에 서울패션위크 전용관에 입점하는 브랜드는 총 5개로, 춘계 서울패션위크에서 바이어가 주목한 ‘다시 보고싶은 패션쇼 TOP5’ 중 얼킨, 비엘알, 아조바이아조 3개사가 입점을 완료했다. 이 외에도 올해 추계 서울패션위크 참여 브랜드 2개가 7월 중 추가로 입점할 계획이다.
 - 개관 행사에 참여한 비엘알은 K-POP 문화를 기반으로 한 예술적 데님 크래프트를 지향하는 브랜드로 EXO, GOT7, 세븐틴 등 K-POP 아이돌 의상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한 이력이 있다.
 - 브랜드 얼킨은 ‘패션에 예술을 붙여넣다’라는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업사이클링과 예술을 결합하여 매 시즌 다양한 메시지를 패션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.
 - 아조바이아조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웃사이드의 감성으로 아시아의 서브컬처를 스트리트 웨어로 표현, MZ세대 인지도가 높은 유니섹스 브랜드이다.

- 시는 일본 내에서 K-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, 롯데면세점 긴자점이 관광 및 쇼핑 중심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,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매출 상승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.

- 아울러, 시는 오프라인 입점에 그치지 않고 K-콘텐츠 등을 연계한 브랜드 마케팅을 기반으로 롯데면세점과 상호 협력해 중소 유망브랜드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지도 제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.

- 한편, 도쿄 긴자점에 서울패션위크 전용관 개관을 시작으로 8월 초에는 국내 면세점 중 최대 규모인 잠실 월드타워점 면세점에도 ‘서울패션위크 브랜드 전용관’이 문을 연다. 시는 롯데월드타워점 진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여행객의 인지도까지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